

9월 폭염 정전 대란

한전, 수요 폭증 과부하 우려 차단
광주·전남 90여만가구 전력 끊겨

때 아닌 폭염에 국가 전력대란이 발생했다.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3·6면> 이에 따라 광주·전남 전 지역 90여만 가구와 기업 등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서·관공서·은행 등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 15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께부터 8시까지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30분씩 순차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정전은 광양 34.2도, 광주 33.3도 등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 예비전력이 크게 떨어지자 한전이 발전소의 과부하 등을 우려해 전기를 강제로 끊은 데서 비롯됐다.

예비율이 5%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상 체계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면서 산업계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지역 곳곳의 아파트와 주택 등에 전기가 끊기면서 냉방기와 냉장고를 가동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 일부 신호등이 먹통이 되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정전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멈춤사고로 주민이 갇히는 사고도 잇따라 119에 50여건의 신고가 쇄도했다. 광주 첨단·평동산단, 여수산단 등 산업단지에도 정전이 발생, 수 천 개

중소업체가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피해를 봤다. 시민들은 예보없는 대규모 정전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예방적 차원에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며 “계속 공급하다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손실이 없겠느냐”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5일 오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로 광주시 서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의 전등이 꺼져 암흑으로 변하자 간호사들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자전거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11월 5~6일 2011 Green 자전거축제



- ◆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11 GREEN 자전거축제'가 오는 11월 5~6일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 음력으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로드레이싱대회에 지난해 없었던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거북이자전거행진을 추가했습니다.
 - 특히 이틀 동안 농수축산물 홍보관매 부스를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희망을 심어주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을 통해 소중한 농촌사랑의 길을 모색하도록 꾸몄습니다.
 - 이와 함께 풍물패 놀이, 자전거 묘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습니다.
 - 풍성한 수확의 계절, 농촌과 함께 하는 이번은 축제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 거북이자전거행진(비경쟁 4.5km)
 - 일시 : 2011년 11월 5일(토) 오후3시 출발
 - 코스 : 광주상무지구 일원
- ◆ 로드레이싱대회(경쟁 50km)
 - 일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전8시30분 출발
 - 코스 : 광주상무시민공원 ~ 동신대앞교차로 ~ 대산삼거리 ~ 서창교 ~ 광주상무시민공원
- ◆ 농촌사랑축제
 - 일시 : 2011년 11월 5일(토) ~ 6일(일)
 - 내용 : 호남지역 주요 농수축산물 홍보장 운영
 - 장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일원
 -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미사회
 - 문의 : 062-220-0541, 홈페이지 bike.kjmedia.co.kr

18일(일)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개막

오전 9시 광주시 북구 양산동 OB맥주 구장 ▶16면

농촌 들녘은 고마운 9월 땀별

태풍·호우에 흉작 걱정 벼·과수
8월 이후 맑은 날씨에 생육 호전

올해 작물 생육기인 6~8월 계속된 태풍과 집중호우 등 번덕스런 날씨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농민들의 얼굴이 따가운 가을햇살 덕분에 활짝 퍼졌다. 8월 하순 이후 맑은 날씨가 지속돼 벼 등숙률(여우는 비율)이 높아지고 과수 당도가 높아지며 색깔이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농작물 생육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1일 실시한 벼 생육상황 조사결과 포기당 이삭 수는 17.9개로 전년과 같고, 이삭당 벼알 수는 85.3개로 전년보다 2.2개, 평년보다 3.7개가 많은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역시 8월 말 들어 낮 날씨가 쾌청하고 밤 기온이 떨어지며 생육에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올해는 일조량이 적음에도 추석이 빠른 탓에 사과농가는 출하에 앞서 있을 따주거나 반사필름을 지표면에 까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히 과수는 낮에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축적해도 밤 기온이 높으면 호흡작용에 의해 영양분을 소모해버려 과실이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같은 기상이 계속되면 과일이 커지고 당도와 색깔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잎과 가지, 뿌리 등에 영양분을 축적, 튼튼해진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금 기상은 벼와 과수가 충실히 익어가는 ‘황금 날씨’”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정오를 기해 나주, 화순, 순천 등 전남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폭염특보는 2008년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양이 34.2도, 광주 33.3도, 장흥 33.1도, 순천·해남은 32.2도까지 올라가면서 9월 중순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번 무더위는 17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2 0 1 1 L E E S U N H E E C O N C E R T

여왕의 귀환!

이선희의 콘서트

11.5(토) PM 7:00 11.6(일) PM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올해로 가수 인생 27년을 맞은 '국민 디바' 이선희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선희는 이후 서울 세종문화회관공연 등 전국 투어 콘서트 마다 매진사례를 기록 하며 음악팬들을 열광 시켜왔습니다. 1983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에게'로 데뷔 후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아 옛날이여' '인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온 이선희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아티스트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최 | 광주일보 KBC 주관 | KBC 미디어컴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220-0541)
예매 | 쇼티켓/인티파크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 A석 66,000원